

- 2026 년 5 월 속회: '산 위'와 '산 아래'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 80/통 101)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2-13

옛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6.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진 사건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비천한 인간의 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본래적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곧 닥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뒤에 가려진 승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수난 예고로 인해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 율법(모세)과 예언(엘리야)을 성취하려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특히 이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모습은, 이제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자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명하시며 예수님의 아들 됨을 입증하셨는데, 이는 영광스러운 변모의 자리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며 다시 고통받는 세상인 산 아래로 내려가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니다.

7. 나눔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산 위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5 절).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난이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산 위(영광과 안식, 만족과 편안함)'에만 머물고 싶어 외면하고 있는 '산 아래(섬김과 사명, 헌신과 불편함의 현장)'는 어디이고 그곳엔 누가 있나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